

## 정보화시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그 국제정치적 영향

### I. 연구의 배경

#### 1. 21세기 지식강국(知識強國)의 꿈

한국은 21세기 지식강국의 꿈을 꾸어도 되는가? 최근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놓고 희망찬 기대가 한창 피어오르고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명백히 비(非) 강대국인 한국이 정보화 분야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IT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의 성적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BT분야에서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명공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해 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정보화시대의 꽃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TV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일으킨 한류(韓流) 열풍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올려놓았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공은 미래 디지털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지식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강국의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대에는 역사의 보조역에 머물렀던 한국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21세기 지식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지식강국론의 여세를 몰아 한국이 나서서 동아시아 지역의 IT협력을 주도하자는 논의도 한창 피어오르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가 역사적·문화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사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아시아에 정보문화권을 구축하자는 구상도 싹을 틔우고 있다. 지식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안보 분야 지역갈등의 구도를 해소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IT와 대중문화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성과와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진하게 바탕에 깔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지식과 문화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국 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다자적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실질적인 힘을 얻어 동아시아의 지식력을 고양하고 독자적인 지식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는 21세기 글로벌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2. 지식질서와 지식전략의 연구

이러한 한국의 지식강국화와 동아시아의 지식질서에 대한 기대는 20세기 후반 이래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 지식강국의 꿈은 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전략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실제로 지난 수백 년 동안 근대 국제질서의 물질·지적 토대를 제공한 근대 지식질서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을 생산하는 신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식의 내용과 개념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까지도 변화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생산과 전파 및 소비를 둘러싸고 새로운 제도가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국내외 세력들 간의 역관계도 변화를 겪고 있다. 더 나아가 IT의 발달이 야기하는 인식론적·존재론적 변화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근대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 정보문명의 도래를 예견하기까지 한다. 요컨대 21세기 지식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글로벌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일 것이다. 당시 서구의 근대 세력들이 동아시아에 밀려왔을 때,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대포와 군함’ 자체의 위력이었다기보다는, 그 ‘대포와 군함’이 서구인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이룩해낸 지식체계의 종합적인 산물이라는 점이였다. 실제로 서구는 인류의 지식을 양적·질적으로 확장시킨 근대 지식질서의 창출을 바탕으로 하여 소위 군사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불리는 근대적 사회변화들을 이룩하였다. 다시 말해, 서구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그리고 종교개혁 등이 이룩해 놓은 근대적 지식체계의 토양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 이렇게 복합적인 모습을 띠는 서구의 근대를, 특히 그 저변의 근대 지식질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둔했던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렇다면 새로운 글로벌 지식질서로 가는 길목에 선 우리가 추구할 **21세기 지식전략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것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근대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발전모델을 수립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토록 따라잡으려고 애쓰던 서구 주도의 근대 지식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가 다시 한 번 구조변동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 적응하는 게임에서 동아시아는 더 이상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심찬 도전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프로젝트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역사적·이론적·경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내용

### 1. 지식질서 연구의 빈곤

본 프로젝트에서 제기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지식과 지식질서를 탐구하는 작업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계적인 화두 중의 하나는 지식이다. 기술, 과학, 정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등과 같이 세상의 변화를 논하는 이들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본 지식을 말하고 있다. 21세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이라는 자원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21세기의 지식은 빠르고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핵심이며,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만드는 요체이고,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은 21세기 세계정치적 지면에서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 간혹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야기하는 획기적인 변화에 흥분하여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혁명을 논하기도 한다. IT혁명, 기술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디지털혁명, 인터넷혁명, 커뮤니케이션혁명 등이 그것이다. 물론 소위 혁명이라는 현상들도 따지고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줄곧 있어왔던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는 변수가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식 변수는 근대 이래 국제정치사의 지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들도 지식 변수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군사와 정치경제 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가 지식 변수를 여타 변수에 대해서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식과 지식질서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대별해 보자면, 다음의 세 그룹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익(interests)을 중심으로 지식질서의 구조(structure), 즉 지식자원의 분포도를 탐구하는 입장이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둘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제도(institutions)을 중심으로 지식질서의 레짐(regimes)을 탐구하는 입장이다. 지식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을 연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입장인데 기원을 찾자면, 에른스트 하아스(Ernst Haas)를 들 수 있다. 끝으로, 구성주의/성찰주의적인 관점에서 관념(ideas)을 중심으로 지식질서의 공동체(communitary)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입장이다. 지식을 유통시키는 관념적 네트워크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 대한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지식질서를 보는 분석틀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빈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지식질서 연구의 빈곤을 자성하여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관찰되는 지식과 세계정치의 동학을 ‘정보화시대의 제국(empire)’이라는 개념적 프리즘을 통해서 탐구한 바 있다(2004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본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지식과 세계질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시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그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를 막론하고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인 연구라고 자부한다.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가 지식과 지식질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세계사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세계정치 연구에서 더 이상 지식 변수를 종속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이다. 지식을 둘러싸고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지식 변수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식을 중심으로 세계정치를 볼 때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 변수를 중심으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이론적·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존 국제정치학계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부연·설명하면서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지식질서 연구의 분석틀

**첫째, 지식질서란 무엇인가?** 지식질서란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일정하게 조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질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둘러싸고 작동하는 정치적 권위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지식구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스트레인지는 지식구조를 “어떠한 지식이 발견되고 어떻게 저장되며 누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 누구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 지식을 소통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이러한 지식구조는 유사 이래 존재해 왔으며, 중세와 근대를 거쳐서 최근의 정보화를 계기로 하여 더욱 더 교묘한 형태의 권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식구조 또는 지식질서의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적 의제의 가시적 구도 안으로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동학을 살펴보는 준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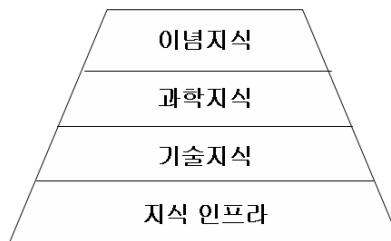
**둘째, 지식질서는 어떠한 개념적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식질서를 구성하는 지식의 개념적 실체는 무엇이고 그 개념적 내포와 외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 지식은 주관적으로 그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사회과학적으로 그 객관적인 실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변수이다. 따라서 지식을 논하는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프로젝트는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개념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개념사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지식은 구체적인 차원으로부터 추상적인 차원으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 가지의 개념적 층위로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지식질서란 이러한 네 층위의 지식을 구성요소로 하여 형성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 첫째, ‘지식 인프라’로 구성되는 지식질서이다. 지식 인프라는 지식이 생산과 유통 및 소비되는 기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띤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나 통신망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표준이나 언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속한다.
- 둘째, ‘기술지식’으로 구성되는 지식질서이다. 기술지식은 자연 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지식’으로서 보통 기능, 기술, 응용과학 등의 형

태를 띤다. 이는 ‘도구론/방법론 차원에서 파악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지식은 서구의 근대에 이르러서야 일종의 지식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셋째, ‘**과학지식**’으로 구성되는 지식질서이다. 과학지식은 인간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일반적 원리(episteme)를 파악하는 객관적 인식체계의 지식으로서 보통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형태를 띤다. 이는 ‘인식론 차원에서 파악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면 이러한 과학지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끝으로, ‘**이념지식**’으로 구성되는 지식질서이다. 이념지식은 인간의 정체성이나 가치, 신념 등에 관련된 규범적 지식으로서 보통 이데올로기, 종교, 도덕 등의 형태를 띤다. 이는 ‘존재론 차원에서 파악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지식은 보통 문화라고 지칭하는 영역과의 경계가 겹쳐 있다.

<그림1> 지식의 개념적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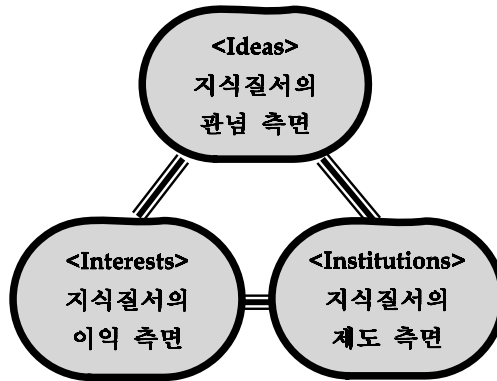


셋째,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러한 지식질서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의 객관적 배열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지식질서 전체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원래부터 지식이라는 변수는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주관적이고 비가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세 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시각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에서 널리 원용되고 있는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의 세 가지 분석틀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뿐만 아니라 지식질서의 영향을 받은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원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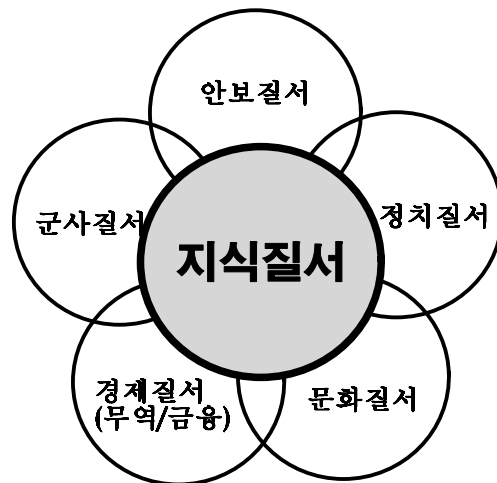
- 첫째, **지식질서의 관념 측면**이다. 지식질서 변화(또는 현상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구상과 담론이 제기되는 측면이다. 이는 지식질서의 관념형성(ideation) 메커니즘에 해당되는데, 이념지식을 공유하는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존재와 거기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및 정체성의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둘째, **지식질서의 이익 측면**이다. 지식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갈등의 측면이다. 이는 지식질서의 사실상(*de facto*) 메커니즘에 해당되는데,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행위자들 간의 경쟁이나 지식패권의 구조적 형태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끝으로, **지식질서의 제도 측면**이다.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 대한 구상과 행위자들 간의 경쟁을 거치면서 등장하는 제도협력의 측면이다. 이는 지식질서의 법률상(*de jure*) 메커니즘에 해당되는데, 지식자원의 안정적 배분을 위한 공식적인 국제기구나 비공식

적인 국제레짐의 수립, 그리고 지식외교의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림2> 지식질서의 세 가지 측면



<그림3>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국제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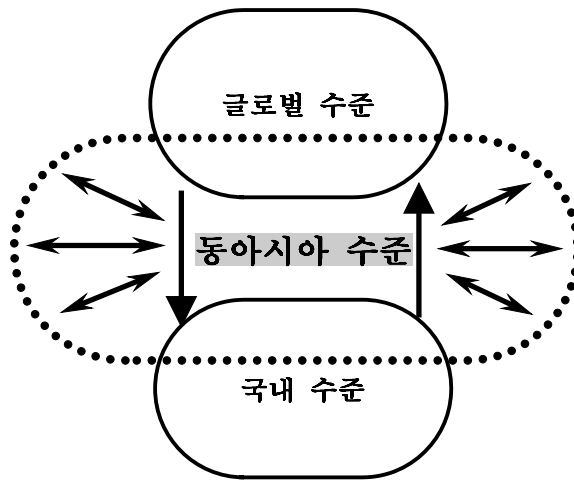


넷째, 지식질서는 국제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정치에서 지식이 왜 중요한가? 지식질서와 일반적인 국제질서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설정되는가? 다시 말해 지식 변수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지식 변수의 부상이 야기하는 세계정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차원에서 개념적·이론적·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지식 변수가 세계정치에서 갖는 중요성은 지식이 21세기의 핵심적인 권력자원으로 부상하는 소위 권력이동(power shift)의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지식을 매개로 하여 권력이 기반으로 삼는 자원과 그 작동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력분포 또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관념적 메커니즘이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군사, 안보, 정치, 무역, 금융, 문화 등의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그림3>. 여기서 지식질서는 여타 국제질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범주로서 위상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질서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

태적 범주로서 설정된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세계정치 행위자(특히 국민국가)들의 존재형태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구성 원리나 작동 방식 등의 변화도 예견된다.

**끝으로, 지식의 세계정치는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글로벌 차원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질서의 변동과 각국의 대응이라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수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세기 이래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돌아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을 매개로 하여 글로벌 세력과 경쟁하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아시아의 정보산업이나 사이버공간의 움직임은 이러한 대항담론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이러한 지식질서 분야의 변화양상은 군사, 안보, 정치, 무역, 금융, 문화 분야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반의 변동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요컨대, 지역 지식질서와 지역 국제질서의 구조변동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열린 집중공간’으로서,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수준의 변화와 동아시아 각국 차원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새로운 제도화의 모색을 벌이고 있다.

<그림4> 글로벌·동아시아·국내 수준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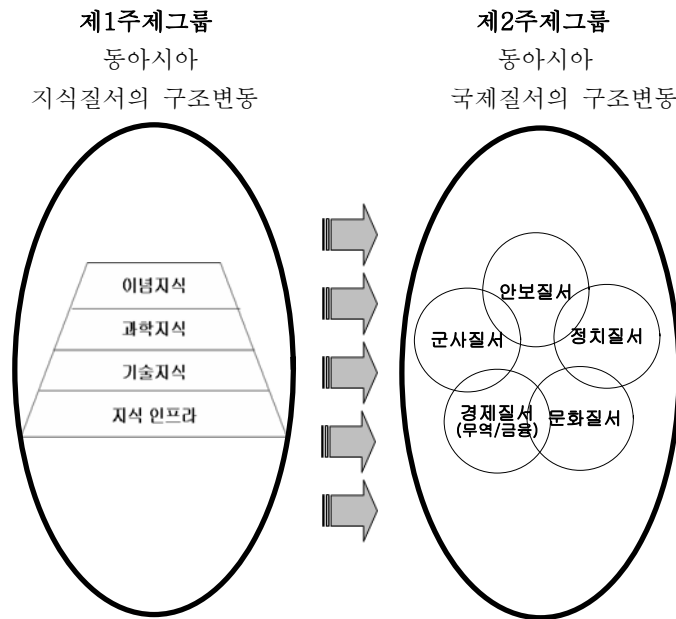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는 정보화로 대변되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식질서(자식 인프라, 기술지식, 과학지식, 이념지식)의 관념-이익-제도 측면을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전략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정치·군사·안보·무역·금융·문화 분야 동아시아 지역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밝혀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는 본 연구 프로젝트의 의의는 20세기 후반 이래 진행되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한 이론연구를 지식이라는 구체적인 변수의 추가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화의 작업이 안고 있는 자기한계를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완한다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 Ⅲ. 연구의 구성

정보화시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그 국제정치적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개의 주제그룹으로 세분하였다.

<그림5>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그 영향



- 첫 번째 그룹은 동아시아 지식질서 자체의 구조변동을 다루었다. 특히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1>에서 언급한 지식의 개념적 층위별로 나누어 i) 지식 인프라의 질서, ii) 기술지식의 질서, iii) 과학지식의 질서, iv) 이념지식의 질서 등의 네 범주를 선정하였다.
- 두 번째 그룹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특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구조변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3>에서 언급한 분야별로 나누어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i) 군사질서, ii) 안보질서, iii) 정치질서, iv) 무역질서, v) 금융질서, vi) 문화질서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한편 개별주제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개념적·이론적 주제를 **공통모듈**로 설정하였다. 공통모듈의 주제는 지식질서에 대한 입체적 연구에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념-이익-제도의 분석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 프로젝트가 수행할 11개 연구주제의 목록은 <그림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각 연구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제시되는 <과제1>부터 <과제11>까지의 각론 프로포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6> 연구의 세부내용

• 총론: 지식질서의 개념과 이론

과제1	개념과 이론	지식질서 구조변동의 분석틀	김상배
-----	--------	----------------	-----

• 제1주제그룹: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

과제2	지식인프라 질서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계량적 이해	김상배, 강상규, 김준석
과제3	기술지식의 질서	동아시아의 정보화 구상과 첨단기술경쟁 및 제도협력	배영자
과제4	과학지식의 질서	탈실증주의의 전파와 동아시아 과학지식질서의 변동	김준석
과제5	이념지식의 질서	'참여 지식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동아시아 다자주의	전재성

• 제2주제그룹: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제6	지식질서와 정치질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관념과 제도의 비교분석	이옥연
과제7	지식질서와 군사질서	9.11 이후 동아시아의 군사변환 수용과 첨단군사력질서	황지환
과제8	지식질서와 안보질서	탈근대 복합안보와 정보보호 분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상현
과제9	지식질서와 경제질서	동아시아 전자금융과 전자상거래 질서의 관념과 제도	조화순
과제10	지식질서와 문화질서	동아시아 정보문화권 구상과 문화산업 네트워크	민병원

#### IV. 연구의 방법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논문들은 각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적합한 연구의 방법이 채택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본 프로젝트는 문헌분석과 현지조사 및 계량데이터 분석 방법을 주로 취할 것이다.

-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공식 문건, 학계의 연구논문, 그리고 인터넷 상의 자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구독하는 국내외 주요 신문과 잡지, 학술서적,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둘째, 이외에 문헌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없는 구체적인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비공식 자료 등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끝으로, 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나 통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제2: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계량분석>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본 프로젝트는 월례세미나, 공개발표회, 학술지 게재 또는 편집 단행본 등의 형태로 진행 중인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벌일 것이다.

- 우선, 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책임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모임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월례 세미나**를 통해 참여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 진척 상황을 중간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 둘째, 본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구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보고서 단계에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최종 보고 이전에 학계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이다.
- 셋째, 연구결과는 선별하여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논문 전체를 **편집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 V.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활용방안

이론연구의 차원에서 본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탈근대 현상들을 지식의 세계정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이론들을 모색하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이론, 심지어 이러한 주류 이론들을 비판해온 구성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중심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기술·정보·지식 등이 차지하는 세계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설명만을 반복해왔다. 본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지식 질서의 이론적 논의**는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학계에 대한 파생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전략 연구의 차원에서 본 프로젝트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물류, 금융, IT의 허브를 지향하는 정부의 국가전략이 여러 측면에서의 비판 및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미래 지식전략의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담론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21세기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후속적인 이론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21세기 세계질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은 테러와 이라크사태,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반세계화, 그리고 문화 분야의 대항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과 지식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두어 군사, 안보, 정치, 무역, 금융,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전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 둘째, 본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연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는 지구화·정보화의 영향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 및 각국의 국내체

제 변화를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세계정치 부상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비교적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국가 차원의 경험연구에 치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끝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화시대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학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략의 수립에서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젝트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수집 및 생산, 지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연구 결과는 ‘정보세계정치학(the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 교육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활용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에게 학문적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